

내 가족의 자랑거리

김 다은

나는 한글학교에서 3.1절을 맞이하여 유관순 언니에 대한 동영상 보게 되었다.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나는 3.1절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신 우리 외증조 할아버지에 대해 엄마에게 물어 본후 인터넷으로 알아 보게 되었다. 외증조 할아버지의 성함은 이 유항 이시며 1887년 12월 26일에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나셨다. 할아버지는 그 시대에 한학을 공부하신 지식층으로 일제 시대에 여러가지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 셴다고 한다. 그런데 서른살이 넘어가면서 주변의 어른들과 함께 독립에 대한 관심과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셨던거 같다. 그러나 아직 자녀들도 어린 상태였고 가정 상황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들 조차 독립운동을 하시는 할아버지에 대해 지지를 못 하셨다고 한다. 외증조 할아버지는 1919년 4월 1일 드디어 만세운동에 참여하셨다.

이날의 독립운동은 처음에 양상면과 원곡면에서 각각 시작하였는데 할아버지는 이날 천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원곡면 사무소에 모여서 만세운동을 하시고 면장을 앞세워 횃불을 들고 양성면으로 행진 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양성면내에 있는 주재소와 우체국, 면사무소를 파괴하기로 결정 하였다.

처음에 시작된 독립 운동은 1천명에서 2천명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경찰 주재소 앞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시위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외치고 주재소와 숙직실을 불태워 버리셨다. 그리고 나서 양성 우체국으로 가서 그 곳의 건물을 파괴하고 불을 질렀으며 일본인이 경영하는 가게들을 파괴 하셨다고 한다. 또한 양성면 사무소로 가서 서류와 물건들을 파괴하고 시위군중과 함께 뒷산에 올라가 독립만세를 외치고 흩어졌다. 이튿날 새벽까지 이 독립운동은 계속 되었고 마침내 할아버지는 원곡면 사무소의 건물을 파괴하고 만세운동을 하던 중 체포 되셨다. 그리고 1921년 1월 22일에 할아버지는 징역 3년형을 받고 감옥에서 지내셨다. 할아버지는 3년째되는 해에 병이 악화되서 결국 형무소에서 나오셨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그 이후 집으로 오셔서 쓸쓸히 돌아가셨다. 엄마가 그전에 한국에 가신 적이 있는데 그때 안성 3.1 운동 기념관에 가셨었다. 그곳에서 고문장소와 감옥을 보셨는데 보기만 해도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한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엄마와 함께 인터넷으로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 그리고 윤봉길 의사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다. 이분들 영상을 보다보니 그 분들과 깊이 연결된 한 분을 알게 되었다. 그분은 이 회영이라는 분인데 ‘ 독립운동의 아버지’ 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중요한 분이셨다. 그 시대에 그분 가족들은 명동과 양주에 엄청난 땅을 가진 부자였고 10대째 한번도 거르지 않고 국가에서 영의정, 좌의정

등 중요한 자리에서 두루 두루 일을 할 정도로 유명한 집안이었다. 그런데 그 조상들 중에 오성 이 항복씨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엄마가 깜짝 놀라셨다. 왜냐하면 엄마가 경주 이씨인데 이 항복씨가 같은 경주이씨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마는 독립 운동가이신 이 회영씨의 형제들을 알아보셨는데 모두 이름이 ‘영’ 자 돌림이였고 그 부모님 성함이 ‘유’ 자 돌림이었다. 독립운동을 하신 우리 이 유향 할아버지도 ‘유’ 자 돌림이셨고 할아버지의 자녀들도 모두 영자 돌림인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회영씨와 같은 집안이었고 모두 오성 이 항복씨의 후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사실보다 더 놀란 것은 이분들이 그 많은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6 형제가 모두 만주로 독립운동을 하러 가셨다는 것이다. 그 가정을 섬기던 종들 조차도 주인의 뜻을 함께 하기 위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갓난 아이까지 업고 그 추운 중국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한다.

만주에 도착한 이 회영씨 가족은 ‘신흥 무관 학교’ 라는 독립운동의 중요한 장소가 된 학교를 만들어 많은 군인들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키웠으며 가진 재산을 모두 아낌없이 사용하였다. 그런데 결국 가져간 돈이 다 떨어져서 600 억원을 기부한 이 회영씨의 형 ‘이 석영’ 씨는 결국 굶어죽고 6 형제 중 5 명은 독립운동을 하다 모두 돌아가셨으며 그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자녀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 분들의 조상이신 이 항복 할아버지도 임진왜란때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다고 들었다. 그런데 그 이후 몇 백년이 흐른 뒤 후손들은 다시 잃어버린 국가를 위해 자신들의 재산과 물질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 희생 할 정도로 그 집안은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없어서는 안되는 훌륭한 일들을 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이 회영씨의 동생 중 이 시영씨만 살아남아서 우리 나라 초대 부대통령이 되셔서 나라를 세우는 데 중요한 일을 하셨다고 한다.

나는 이런 분들이 우리 조상중에 계셨다는게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외증조 할아버지 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용한 마을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 하시고 독립운동을 계획하셔서 마침내 같은 뜻을 품은 이웃들과 아무 무기도 없이 독립 만세를 외치신 우리 할아버지도 정말 훌륭하시다고 생각한다. 유 관순 언니도 감옥에서 고문 가운데 1 년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우리 외 증조 할아버지는 3 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고문과 외로움 속에서 버티시다 결국 돌아가셨으니 말이다. 그리고 외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7 남매들은 아버지 없이 힘들게 살았는데 2 째 할아버지는 일본에 징역으로 끌려가셔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한다. 돌아 오셔서 첫째 할아버지와 함께 집안을 일으키시고 70 년대 새마을 운동을 할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셔서 대통령 상을 받으셨다. 3 째 할아버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며 우리나라 전국에 다리와 길을 계획하시고 만드시는 유명한 교수님이 되셨다. 그리고 4 째 아들인 우리 외 할아버지는 건축일을 하셨는데 외 증조 할아버지가 사셨던 안성에 ‘ 3.1 운동 탑’ 과 ‘ 만세

운동탑’을 설계하셔서 지금도 그 곳에 가면 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은 엄마는 외할아버지가 탑을 설계 하실때 할아버지랑 같이 탑의 모양을 계획하고 그림을 그렸다고 하신다.

이번 여름 방학때 나는 중국 상해에 사는 이모 집과 친척들이 사는 한국에 방문하려고 한다. 중국에 가면 이모와 함께 상해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들을 가보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 가면 외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신 안성과 할아버지의 묘가 있는 ‘국립 대전 현충원’에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그 분들은 어떻게 사셨으며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독립운동을 하신 많은 분들이 종교를 가지고 계셨으며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동시에 이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게 아닌가 싶다. 요즘 나는 가족들과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밤마다 큐티를 한다. 느헤미야도 우리처럼 자신의 나라가 아닌 바벨론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걱정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 그리고 결국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한다. 아마도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미움 가운데에서 그런 일을 못 했을 것이다. 나는 느헤미야와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이땅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나를 미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여름에 외 증조 할아버지의 묘에 가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릴때 한가지 약속을 드리고 오고 싶다. 할아버지 처럼 우리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느헤미야 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 외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집안을 빛내는 사람이 되었음 좋겠다.